■ **자격명: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 **소개말** (시험에 응시하게 된 동기, 시험 준비 기간 등을 서술)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합격수기를 작성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게 된 계기는 일반적인 기업에 취직하여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일반적인 삶보다는,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이공계열 학생으로서,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변리사로서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 중, 선임병 중 한 명이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병역 기간 동안 시험을 준비할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한 이후, 201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여 2018년 7월까지만 3년간 변리사 시험을 공부하였으며, 이 기간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차수별, 과목별 준비방법** (공부한 방법, 합격 득점 요인 분석 등을 서술)

저의 첫 일차 시험은 2016년 2월에 실시된 제53회 시험이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일차 준비를 하였으며, 아무런 정보가 없는 탓에 처음에는 학원 강의를 참고하여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저와는 맞지 않음을 느끼고, 법 과목의 경우 교과서, 조문, 판례 및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자연과학은 기출문제 유형을 바탕으로 대학교 교양수업 및 EBS 교재 등을 참고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자연과학 4과목까지 총 8과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 번 보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고,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여 첫 일차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7월 시행된 저의 첫 2차 시험인 53회 2차 시험은 저에게는 무모한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2차 서술형 문제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지인도 없는 탓에 수많은 좌절과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특히나 여러 번 2차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에 비하여 턱없이 짧은 준비 기간 탓에, 포기만 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양을 줄이고 줄여 필수적인 논점들만 숙지하여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합격하였으나, 합격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점수로 불합격 하였고, 같은 동차 수험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득점하여, 그 이후 두 번째 이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첫 동차 시험 기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7월 시행된 두 번째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끝없는 피드백과 자기반성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학원가의 강의에 의존하기보다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출문제에 대한 채점평, 최근 몇 년간의 기출문제 분석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 내 답안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혼자서 공부하기보다는 주변에 공부하는 지인들과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여, 상호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거치며 저의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답안 작성 연습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하루에 2시간씩 과목을 정하여 답안 작성을 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에서는 고득점을 올렸으나, 선택과목에서 방심한 탓에 정말 아쉬운 점수 차로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합격 탓에 큰 충격을 받고 많이 좌절하고 힘들었으나, 절치부심하여 다시 한 번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2018년도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 실력에 대한 자만심을 버리고, 초심자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기초적인 논점이나 용어부터 다시 하나하나씩 공부하였습니다. 자신의 답안지를 다시 들여다보고 나의 문제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 특히, 그간 기출문제의 경향을 분석해 보았을 때, 학원가의 강의 및 문제들이 적절치 못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학원가의 강의 및 문제와 멀어지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학원가에서 주말에 듣는 모의고사 수업도 일절 듣지 않았고 문제를 구해서 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가진 단권화된 책과 새로 나온 판례 및 심사 기준, 논문 등을 검색하고 분석하여 보며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특히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또 분석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합격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미 여러 번 분석한 기출문제를 다시 또 분석하고 공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11월에 변리사 2차 시험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자격 취득 후 진로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 혹은 예정 진로에 관해 서술)

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변리사 시험공부를 시작한 탓에, 졸업이 늦어졌고, 바로 특허사무소에 수습변리사로 취업하지는 않았습니다. 19년 8월 20일에 졸업 예정이고, 이후에 특허 법인에 입사하여 수습변리사로서 경험을 쌓고, 명세서 작성, 선행기술조사 등 변리사 특유의 업무뿐만 아니라, 기술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분야에 전문가로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이며, 다양한 사업에 뛰어들어 저의 역량을 빛내고 싶습니다.

■ 기타 조언 등 (수험 기간 중 하루 일과, 스트레스 또는 슬럼프 극복 방법, 응원의 한마디 등을 서술)

저의 수험 기간 동안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기상하여(08:00) 간단한 스트레칭 및 명상을 하고, 아침식사를 하였습니다. 아침식사 후 독서실에 착석하여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약 40-50분간 가벼운 운동을 하였는데 보통 하루에 식사시간 포함 1시간 30분 정도를 썼습니다. 이후, 저녁까지 공부하고 저녁식사 후에는 주변 공원이나 거리를 산책하며 머릿속으로 그날 공부한 것을 복기하고 되뇌었습니다. 이후 독서실 자리로 돌아와서 밤 11:00까지 공부하였으며, 이후에는 개인정비 후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늦어도 새벽 한시 전에는 잠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수험 기간 동안 수험생으로서 당연히 수많은 스트레스 및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운동, 명상 및 종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마음의 안정 및 여유를 갖는데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는 쉬거나 노는 게 아닌, 오히려 공부시간을 더 늘려서 양으로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공부로 인하여 오는 스트레스나 슬럼프는 결국 공부로 밖에 풀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휴식과 refresh를 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일정 시간 자유시간을 가지며 친구도 만나고 여가생활도 하려고 노력했으며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 시험은 절대로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지만, 수많은 노력 및 올바른 방향성만 갖는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하며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절대로 쉽지 않지만 이러한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면 반드시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